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11월 (워킹스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436(주 날개 밑)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 를 정성껏 바칩시다.
 - 연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대림시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강의, 비디오상영, 기도의 밤)
 - 구역 관공성사를 잘 준비를 잘 합니다.
 - 본당 30주년의 내적인 준비로 새 성경 읽기와 성경문제 풀어보기
(성경 읽기표 참조)
-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444(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2장 빛의 신비인 성체성사

거행하고, 공경하고, 관상하며

18. 미사 거행에서든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에서든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생생한 인식을 특별히 길러야 합니다. 어투, 몸짓, 자세, 행동을 통하여 그러한 인식을 보여 주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례 규범이 요청하고 저 자신도 최근에 재천명하였듯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반포 40주년 기념 교황 교서 「성령과 신부」(Spiritus et Sponsa), 미사 거행에서나 성체 조배에서 침묵이 중요 합니다.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깊은 존경으로 성체를 대해야 합니다. 성체성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거나 피하여야 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은 자석의 양극과 같이 더 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들은 그분께 매료되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른바 그분의 심장 박동을 느끼려고 끈기 있게 기다릴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들여라”** (시편 34<33>,8).

성체성사의 해 동안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조배는 개별 본당들과 수도 단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됩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부주의하고 태만한 행동들을 고쳐나가고, 우리 구세주께서 세계 도처에서 견디셔야 하는 상처들까지도 치유합니다. 또한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수많은 신비주의 체험과 하느님 말씀에 영감을 받은 기도문들에 의지하여, 성체조배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관상에 깊이를 더해 나갑니다. 제가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에서 권고한 대로, 묵주기도를 성서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틀 안에서 이해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동반자이며 안내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성체를 관상하도록 이끄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또한 성체성사의 해에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그 날의 전통적인 성체행렬과 더불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거행합니다.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고자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서나 특히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리의 감사가 깃든 사랑의 표현으로, 또 무한한 은총의 원천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묵상>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1-17-

사랑의 진행과정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단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째 단계를 통해서 교회 내부의 사랑은 밖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구성원들을 포용하게 된다.

새로운 제자들의 존재는 실로 제자들이 서로에게 보여 주는 사랑의 결실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손에 잘려 나가게 될 가지들은 곧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은 새 구성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 없는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참된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포도나무에는 죽은 가지들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그가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인 것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의 벗을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이다.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바칠 수 있는 것을 모두 바쳤다는 뜻이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를 하느님께 모두 내어 바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상황, 사물을 자기의 상상이 아닌

실제 그대로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남들을 자기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제어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 자체 때문에 사랑을 즐기는 것이다.

더불어 웃고 친교하고 나누되 매달리지는 않는 것이다.

성공, 인정, 칭찬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무엇보다

은 존재를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나눔>

1. 앞으로 100일 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2. 내가 가진 것(시간, 재능, 돈, 물건 등)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어렵머이다.

거룩한 척 하긴 쉬워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순수한 척 하기 쉬워도
어린아이처럼 살기는 사실 어렵머이다.

믿음이 있는 척 하기는 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니고 살기는 참말 어렵머이다.

물질의 허영에서 벗어나는 척 하긴 쉬워도
자신이 가진 것 다 버리고
철저하게 가난한 자 되기는 진짜 어렵머이다.

남을 돕는다고 떠들기는 쉬워도
오른 손 한일 왼손 모르게
말없이 돕기는 정말 어렵머이다.

자연을 아끼는 척 하기는 쉬워도
풀 한포기 새 한 마리와 대화하며
노래 들려주기는 더욱 어렵머이다.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기는 쉬워도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기는 더더욱 어렵머이다.



- 퍼은 글 -

“오늘은 나의 것, 내일의 너의 것”